

창립 10주년 기념회 기념사



존경하는 박성득 정보통신부 차관님, 한태희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협회 창립 10주년 및 10년사 발간 기념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협회가 정보사회 초창기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출범하던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협회가 설립되던 시절은 국가차원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으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 나라 정보통신분야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날 첨예한 국제경쟁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는 첨단화·다양화되면서 이의 활용이 정부행정이나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조사통계 등을 통한 경영지원, 연구개발 지원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할 및 활동은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협회의 발전도 가져오는 동반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협회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는 정부 당국과 한국통신, 데이콤, SK Telecom을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 그리고 여러 회원사들의 부단한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방송·정보·가전의 융합, 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화 진전 등 수많은 변화의 요인들로 인해 사회경제 구조의 기본틀까지 재구성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보통신인의 분발이 더 한층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하여 관·산·학·연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협력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역할을 찾아내어 수행함으로써 정보화촉진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한 매듭을 짓고 또다른 10년의 역사를 쌓기 위하여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협회가 다가오는 21세기 새시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정보통신부, 유관기관 그외 정보통신인 모두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7. 10. 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 공 석